

■ 괴운(槐雲) 칼럼



설니홍조(雪泥鴻爪)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소동파의 시에 설니홍조(雪泥鴻爪)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러기가 눈발에 남기는 선명한 발자국'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자취는 눈이 녹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흔적도 이렇게 아닐까요? 언젠가는 기억이나 역사에서 사라지는 덧없는 여로에서 뜻있는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지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중년의 나이를 넘으면 존경을 받지 못할지언정 욕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고사(中國 故事)에 강산이개(江山易改) 본성난개(本性難改)라는 문장이 있는데, '강산은 바꾸기 쉽지만, 본성은 고치기 힘든 것 같다'는 뜻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본성이 잊몸처럼 부드러워져야 하는데 송곳처럼 뾰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하고 일갈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그럼, "당신은 자신을 아느냐?"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본성을 고치는 절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은 다섯 가지를 잘 먹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음식을 잘 먹어야 한다. (2) 물을 잘 먹어야 한다. (3) 공기를 잘 먹어야 한다.

(4) 마음을 잘 먹어야 한다. (5) 나이를 잘 먹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존경받는 삶의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년의 나이를 넘으면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기보다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스무 살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쉰 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작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중년 이후의 얼굴은 그 사람 인생

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듯이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큰 업적이나 칭찬받기보다는 지탄받거나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인생이 더 위대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향노루 이야기'입니다. 어느 숲속에서 살던 사향노루가 코끝으로 와 닿는 은은한 향기를 느꼈습니다. "이 은은한 향기의 정체는 뭘까? 어디서, 누구에게서 시작된 향기인지 꼭 찾고 말거야." 그러던 어느 날, 사향노루는 마침내 그 향기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험준한 산 고개를 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사향노루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헤매도 그 향기의 정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여전히 코끝을 맴도는 향기를 느끼며 어쩌면 저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서 향기가 시작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향노루는 그 길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쪽 발을 헛딛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사향노루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향노루가 쓰러져 누운 그 자리엔, 오래도록 은은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향기의 정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향노루. 슬프고도 안타까운 사연은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순간, 바로 여기,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더 먼 곳, 더 새로운 곳,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행복과 사랑,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끝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비명횡사한 사향노루가 아닐까요? 우리 독자님들도 최고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랑가시나무를 기억하는 저녁

권충욱

경남 함안에 사시는 권충욱(좌윤공파) 시인께서 시집을 보내왔다. 시집 첫장을 펴니 쪽지에 "시집 한 권 보냅니다. 미숙하지만 읽어보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배우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또 시인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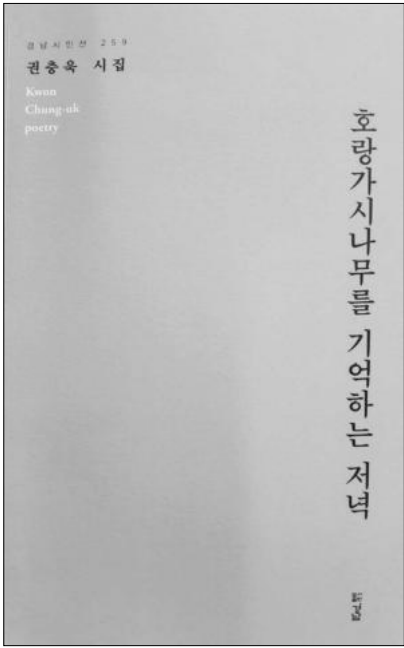
형제 지인들 독려에
겨우 마음 추스린다
부지하세월을 무위로 보냈으니
날마다 깊이 반성한다
모두 내 탓이다 용서해 다오
외람되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새날을 맞고 싶다
시편들은 먼저 쓰여진 대로 담았다
먼동이 밝아오는데
덧대고 기운 글이 남루하다

고목

삶이 깊이며
깊이 곧 삶인 것을
하늘로 직립한
저 옹고집 보면 알겠다.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온
침묵의 긴 세월
참 멀리 왔구나.

오랜 시간의 축적과 내면의 숙성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표현이다. AI시대에 누가 시인처럼 모두 내 탓이라 하고 부끄럽고 남루하다고 말하는가.

이런 시인에 대해 이달균 시인은 해설에서 오래 묵은 장맛의 짭짤함과 여유, 장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고, 오래 다듬



어 온 내공으로 빛나는 언어들이 시간의 결을 고이 드러내 준다고 설명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오이디푸스, 가혹한 운명에 맞선
당당한 ‘인간 선언’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 자식을 낳거나 낳은 저주받은 인물이 있다. 바로 소포클레스(Sophokles, B.C. 497~406)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Oidipous Rex)〉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어린 남자아이의 어머니를 독차지하려는 욕망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 이름짓기도 했다. 오이디푸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신탁(神託)을 거부한, 저주받은 운명

그리스 테베(Thebai)의 라이오스 왕은 왕위를 계승할 자식을 달라고 델포이의 신전에 가서 빌었는데, 아들을 낳겠지만 그 아들의 손에 죽는다는 아폴론의 신탁(神託)을 받았다. 해서 친아버지를 죽인다는 신탁 때문에 갓난아이의 발뒤꿈치를 뿔어 끈으로 묶고(‘붉은 발’이라는 뜻의 오이디푸스라도 여기서 연유) 양치기에게 맡겨 산속에 버려 죽게 하였다. 하지만 양치기는 아이를 가엾게 여겨 코린토스 왕의 양치기에게 주었고, 그 양치기는 다시 자식이 없던 코린토스의 왕에게 아이를 바쳐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 왕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

오이디푸스는 훌륭한 젊은이로 자라났고 운동경기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포레들의 질투를 받았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서 그를 시기한 누군가가 오이디푸스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지껄였다. 불안해진 오이디푸스는 양부모에게 진위를 물어봤지만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는 않았다. 델포이의 신전을 찾아가니 출생의 비밀보다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끔찍한 신탁이 내려 절대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신탁을 듣고 경악한 오이디푸스는 고향이라 알고 있는 코린토스로는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반대 방향인 테베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삼거리 좁은 길에서 달려오던 마차와 마주쳐자 마부가 길을 비키라고 요구했고 마차에 뒤틀린 여행객이 지팡이로 그를 때리자 화가 난 오이디푸스는 마부와 이 귀한 신분의 여행객(그가 바로 친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을 때려죽이고 말았다.

마침 테베에는 스팅크스라는 괴물이 나타나 큰 환란이 일어났었다. 스팅크스는 성벽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이

것을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 수수께끼는 “아침에는 네 발로, 점심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나?”는 것인데,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괴물에게 희생당해야만 했다. 그러자 테베를 임시로 통치하고 있던 왕비의 오빠 크레온은 스팅크스를 제거하는 사람에게 테베의 왕좌와 홀로 된 왕비를 주겠노라 약속했다.

두려움을 모르는 오이디푸스는 스팅크스에게 가서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대답했다. 어릴 때는 네 발로, 커서는 두 발로,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자신의 수수께끼를 맞힌 데 화가 난 스팅크스는 성벽에서 떨어져 죽음으로써 결국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구한 것이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자신도 모르게 모진 운명의 장난에 의해 아버지를 죽이고 테베의 왕위까지 올랐으며 어머니와 결혼해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미 잘 알려진 그리스 신화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끔찍한 신탁을 거부한 오이디푸스의 가혹한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소포클레스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사건을 그리스 최고의 비극으로 만들었다.

가혹한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위대함

여러 해가 지난 뒤 테베에 역병이 돌고 여자들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환란이 닥쳐왔다. 왕인 오이디푸스의 명령으로 처남인 크레온이 받아온 델포이의 신탁은 라이오스 왕을 죽인 그 살인자가 테베에서 추방돼서 죄값을 치러야 역병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조사관이 되어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 놓고 그 천인공노할 살인자를 찾게 되었다. 먼저 늙고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소환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듯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오이디푸스가 협박하자 결국 끔찍한 진실을 말하는데, “당신이 찾는 살인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오이디푸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오히려 처남 크레온이 왕좌를 노리고 이렇게 사주하여 음모를 꾸민다고 여겼다.

바로 이때 코린토스로부터 사신이 도착하여 왕이 죽었으니 돌아와 왕위를 물려받으리라는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그 사신이 바로 오이디푸스를 코린토스의 왕에게 바친 양치기였다. 해서 자신이 코린토스 왕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왕비 이오키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의 조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버려 죽이지 않고 코린토스의 양치기에게 넘긴 왕의 양치기를 증인으로 불러 드디어 자신이 라이오스 왕의 아들임을 밝혀냄으로써 신탁



이 이루어진 잔인한 현실을 확인한다.

왕비인 이오키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 목을 매고 자살하고, 뒤따라 들어온 오이디푸스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오키타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고 옷의 장신구를 빼서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된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벌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테베에서 영원히 추방해 달라며 이렇게 말한다. “내게 쓰리고 괴로운 재앙을 가져온 것은 아폴론이다. 그러나 눈을 찔른 것은 바로 불쌍한 나다. 무엇 때문에 나는 보아야 하나? 눈이 보인들 무엇 하나? 즐거운 것이랴곤 없는데.”

오이디푸스는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탁이라는 ‘신의 의지’의 희생물로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오이디푸스는 신들이 기획한 가혹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결연히 맞서고자 한 인간의 위대함을 보여준다. 신들은 신들의 길이 있지만,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이디푸스는 추방되면서 “병이나 그 밖의 일이 나를 파멸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서야 죽으려던 것이 구원받지는 않았을 터이니까.”라고 선언한다. 신들이 기획한 가혹한 운명에 맞서는 결연하고 당당한 ‘인간 선언’인 셈이다.

서울지역종친회 물놀이 행사

회원 여러분!

기온이 30도 이상 넘나드는 무더운 7월 행사는 그늘 좋고 물 좋은 창릉천 개울물에 발도 담그고 시원한 그늘 아래 돛자리 깔고 웃놀이 한판 벌리며 잠시나마 무더위를 날려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회원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 2026년 7월 12일 일요일 11시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창릉천 개울
- ♣ 교 통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2번 출구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6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63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63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6년 7월 19일(일) 10시(시간 엄수)
- ♣ 집합장소 : 신림선 관악산 종점역 광장(1번 출구)
- ♣ 산 행 지 : 관악산
- ♣ 정기총회 장소: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 장비

- 회 장 권경탁: 010-3796-4047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중우 010-5418-4299

2026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경탁